

混成語의 位相에 대한 一考察

李 善 英

(弘益大 教授)

要約 및 抄錄

混成語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合成의 下位 類型으로 혼성을 보거나, 合成과는 區別되는 別個의 類型으로 혼성을 보거나, 類推에 의한 代置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혼성과 합성, 혼성과 대치가 差異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혼성은 합성과 달리 결합과정에서 切斷이 일어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意味 配列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바, 합성은 대부분 構成成分 중 後行成分이 意味의 中心인 데 반해 혼성은 先行 成分이 意味의 中心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혼성을 代置의 방식으로 보기도 하나 대치라고 볼 수 있는 유형과 혼성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은 따로 存在한다. 또한 혼성에서 일부 예가 接辭처럼 쓰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혼성어의 후행성분이 생산적으로 많은 예들을 형성한다 하여도 이를 겹사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接頭辭로 볼 수 있는 성분이 혼성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혼성이 합성과만 구별해야 할 현상이 아니라 派生과도 구별해야 할 현상임을 보여 준다.

※ 核心語: 新語, 混成語, 切斷, 合成語, 派生語, 代置, 中心 意味, 接頭辭

I. 머리말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概念이나 事物이 생겨나고 그 개념이나 사물을 指示하기 위한 새로운 單語가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진 단어는 單一語일

수도 있고 派生語, 또는 合成語일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混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混成語는 두 단어의 結合이라는 면에서는 합성어와 유사하나 의미 대상이 되는 두 단어의 일부가 切斷된 후 결합한다는 면에서 差異가 있다. 단어형성법 내에서 혼성어가 어떤 位置를 차지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성어란 말 자체가 이미 이 단어의 성격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일단 혼성어를 中立的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혼성어를 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合成의 下位 類型으로 혼성을 보거나, 합성과는 區別되는 別個의 類型으로 혼성을 보거나, 類推에 의한 代置로 혼성을 보는 방식이 그것이다. 우리는 혼성어의 特徵과 그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혼성어를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본 후, 混成과 派生の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신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혼성을 하나의 단어형성방식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II. 混成語의 概念

논의에 앞서 混成語의 概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혼성어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先行語 AB와 後行語 XY가 결합할 때,¹⁾ 두 단어의 일부 요소가 절단된 후 남은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면’의 ‘라-’와 ‘떡볶이’의 ‘-볶이’를 결합하여 만든 ‘라볶이’라는 말은 ‘라면의 면으로 떡볶이의 조리 방식을 본떠 만든 음식’이라는 새로운 뜻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라면 떡볶이’라는 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각각 존재하던 ‘라면’과 ‘떡볶이’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말인 혼성어이다.²⁾ 또한 혼성에서는 경우에 따라 한쪽 성분

1) AB에서 A는 단어의 앞부분, B는 단어의 뒷부분으로 형태소 개념과는 다르다. XY도 마찬가지이다.

2) ‘라볶이’는 네이버 뉴스 검색(<http://news.naver.com/>)에서 2002년부터 用例가 確認되는 단어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은 199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뉴스 기사 검색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검색 결과 나타나는 최초 출현형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음식은 호박죽

만이 절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와 배추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품종’을 ‘무추’라고 하는데, 선행어인 ‘무’는 1음절이기도 하지만 절단된 형태 없이 단어형성에 참여하고 있다.³⁾ ‘지옥’과 ‘지하철’을 합한 말인 ‘지옥철’ 역시 선행성분이 그대로 쓰인 혼성어의 예이다.⁴⁾ 이처럼 혼성어에서는 결합하는 성분 가운데 하나의 성분에서만 절단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혼성어는 略稱語와도 구별된다. 약칭어는 ‘略稱’ 즉 말 그대로 어떠한 대상을 ‘줄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약칭어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고 그 대상을 그대로 가리키는 말로 이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이미 存在하는 句를 줄여 이르는 말로 ‘敎育 實習生’을 줄인 ‘敎生’, ‘住民登錄證’을 줄인 ‘民證’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같이 어울려 쓰이는 단어를 줄여 이르는 말로 ‘先輩, 後輩’를 합하여 ‘先後輩’라 하는 말이 약칭어이다. 이 경우 역시 새로운 의미는 생기지 않고 기존에 같이 어울려 쓰는 단어들을 줄여 이르는 것이다. 예를 더 보면 ‘치맥’과 ‘소맥’의 경우 전자는 ‘치킨과 맥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두 성분을 혼합한 것이 아니므로 약칭어이고, ‘소맥’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술’로 두 성분이 混合되어 分離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혼성어라 할 수 있다.⁵⁾ 또한 ‘할빠’와 ‘엄빠’를 비교해 보면, ‘할빠’는 ‘할아버지’와 ‘아빠’가 결합한 말로, ‘아빠의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의 뜻이고, ‘엄빠’는 ‘엄마’와 ‘아빠’가 결합한 말로 ‘엄마와 아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우리의 判別 基準으로 본다면 ‘할빠’는 혼성어이고 ‘엄빠’는 약칭어로 區別해야 할 말이다.⁶⁾ 또한 두 성분 AB와 XY 가운데 선행어의 앞 성분 A와 후

누룽지 잡채 라볶이 보쌈 수제비 오미자차 등등.”<동아일보 2002.4.29>. 이 단어는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1,169건이 확인된다. 뉴스 검색 결과는 우리가 다루는 예들이 실제 言語生活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하에서는 ‘뉴스 검색 1,169건’과 같이 표시하기로 하겠다.

- 3) 무추: “농촌진흥청, 대학교수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무추(있는 배추에 뿌리는 무), 인공 씨감자, 가지감자, 토마토감자 등 첨단농업기술을 이용한 작물이 전시된다”<연합뉴스 1994.11.4> 뉴스 검색 106건.
- 4) 지옥철: 국립국어원 2000년 신어. 신어 자료집에 실린 단어는 따로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뉴스 검색 2,970건.
- 5) 치맥: “‘치맥’이라는 줄임말이 흔히 사용될 정도로 치킨과 맥주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이뉴스투데이 2010.1.28> 뉴스 검색 19,372건.
소맥: “그냥 소주나 맥주, 막걸리를 한 종류만 마시지는 않는다. 그에게 등산 후에는 ‘소맥’이나 ‘막맥’이 제격이다.”<동아일보 2002.1.6> 뉴스 검색 10,503건.

행어의 뒤 성분 Y가 결합한 AY형이 전형적인 혼성어의 형태이기는 하나 AX, BY 등의 형태도 혼성어가 된다.

(1)

AY형: 뮤페라(←뮤지컬+오페라)

AX형: 소맥(←소주+맥주)

BY형: 네티즌(←인터넷+시티즌)

ABY형: 몰래바이트(몰래+아르바이트)

AXY형: 토페인(←토익+페인)⁷⁾

Ⅲ. 混成과 合成

이제 기존 논의에서 어떻게 혼성어를 규정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혼성어는 최근 新語에서 활발하게 등장하는데, 단어형성과 관련한 이전의 논의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⁸⁾ 혼성어를 다루는 논의에서 첫 번째 유형은 혼성을 합성의 下位 部類로 보는 입장이다. 국립국어원의 <2002년 신어> 자료집이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합성어의 하위 부류로 혼성어를 다루고 있는데, 外來語끼리 결합한 合成語에서 발견되는 ‘混淆形’을 언급하면서, ‘카파라치, 네파라치, 섹티즌’ 등을 다루고 있다.⁹⁾ 또한 국립국어원의 <2014년 신어>에서도 合成語 아래 合成, 混成, 縮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⁰⁾ 오혜선(2013: 53)에서는 혼성어가 複合 形態이

6) 할빠: “최근에는 손주를 기르는 조부모를 일컫는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용어도 생겼다.” <세계일보 2014.4.25> 뉴스 검색 231건.

엄빠: “엄빠 주의(엄마아빠 주의. 야하거나 이상한 사진이니 부모님의 눈을 조심하라는 뜻.)” <동아일보 2012.6.16> 뉴스 검색 310건.

7) BX, ABX, BXY형도 혼성어가 가능할 것이나 예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8) 정원수(1992), 김정은(1995), 시정곤(1998) 등 이른 시기의 단어형성론에서는 혼성의 방식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9) 2001년 이전 신어 자료집에서는 혼성어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2003년 신어>와 <2004년 신어>에는 품사별 신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성어의 위치를 어떻게 보는지 알기 어렵다.

며 構成要素 간의 結合에 의해 生成된다는 점에서 合成의 範疇에 속한다고 보았다.¹¹⁾ 혼성어를 합성어의 下位 部類로 보는 立場은 두 성분의 結合이라는 데 焦點을 맞춘 것일 것이다. 두 意味 成分이 결합하여 새로운 意味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혼성과 합성은 共通點이 있다. 일반적으로 혼성어와 합성어를 區別할 때 基準으로 삼는 것은 形態의 變化이다. 合成語는 先行要素와 後行要素가 切斷과 같은 形態의 變化 없이 그대로 結合하는 반면, 混成語는 先後行 成分 全部, 또는 한 가지 成分에서 切斷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합성어와 혼성어가 形式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意味의 結合에서도 差異가 난다는 점이다. 고영근·구분관(2008: 235)에서는 합성어를 구성 요소들 간의 의미관계에 따라 從屬合成語와 對等合成語로 구분하였는데, ‘손가락, 쌀밥, 할미꽃’의 경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이고, ‘강산, 논밭, 마소’는 두 성분의 관계가 대등한 대등합성어라고 하였다.¹²⁾ 합성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후행성분이 의미의 중심이 되는 종속합성어이다. 예를 들어 ‘밥집’과 ‘집밥’은 ‘밥’과 ‘집’이 결합하여 된 합성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는 ‘밥에 간단한 반찬을 끼워서 싼값에 파는 집’을 뜻하고 후자는 ‘가정에서 끼니 때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을 의미한다.¹³⁾ 전자는 ‘집’의 한 종류이고, 후자는 ‘밥’의 한 종류여서 후행성분이 단어 의미의 中心이 됨을 보여 준다.¹⁴⁾ 이제 혼성어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意味關係를 보기로 하자.¹⁵⁾

10) ‘합성’에 ‘곰손, 무전감방’, ‘혼성’에 ‘꾸러기팀, 먹부심’, ‘축약’에 ‘개총, 너굴나’ 등을 제시하였다.

11) 이 논의에서는 줄임말과 중첩도 혼성의 한 가지 유형으로 다루고 있다.

12) ‘세월, 산수’와 같이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을 融合合成語라고 따로 두기도 하는데, 이는 구성 요소들 간의 의미상 수식 여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종속합성어나 대등합성어와 층위가 달라 함께 다루기 어렵다고 하였다.

13) 사전에 등재된 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의 뜻을풀이를 참고하였다.

14) 신희삼(2008: 110)에서는 합성어 ‘N1+N2’의 의미를 논하면서 ‘[X]N1, [Y]N2 → [[X]N1[Y]N2] N에서 N은 N2이다’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합성어에서 중심이 되는 의미가 N2임을 말한다.

15) 혼성어의 예는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과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확인된 단어를 참고하였다.

- (2) 뮤페라(←뮤지컬+오페라), 빌라트(←빌라+아파트)
- (3) ㄱ. 개그운서(←개그맨+아나운서), 닭돌기(←닭+비둘기)
 - ㄴ. 지옥철(←지옥+지하철), 먹부심(←먹(다)+자부심)
- (4) ㄱ. 기레기(←기자+쓰레기), 닥터테이너(←닥터+엔터테이너),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미(←할머니+엄마)
 - ㄴ.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드라마툼(←드라마+카툼), 카페브러리(←카페+라이브러리)

혼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의 의미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는 두 구성성분이 同等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으로 두 成分의 關係가 對等한 對等合成語와 類似한 類型이다. 예를 들어 대등합성어 ‘논밭’은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마소’는 ‘말과 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構成成分의 意味를 아울러 이르는 표현이다. 또한 ‘강산’은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경치를 이르는 말’이고 ‘나라의 영토’로 意味가 擴張되었다. 이에 반해 (2)의 예들은 그 구성요소를 아울러 이르는 표현이 아니라 두 개가 結合하여 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뮤페라’는 ‘뮤지컬과 오페라를 혼합한 음악 장르’로 뮤지컬과 오페라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두 장르의 특징을 살려 만든 새로운 형식의 음악이다.¹⁶⁾ ‘빌라트’도 ‘빌라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살린 주거 공간’으로 두 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아니라 두 개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주거 형식을 가리킨다.¹⁷⁾ 이처럼 (2) 유형의 혼성어는 對等한 意味의 두 단어를 切斷한 후 結合하여 새로운 意味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3)은 後行成分의 의미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종속합성어와 유사하나 (3ㄱ)은 구성성분의 의미가 동일한 층위이고 (3ㄴ)은 선행어가 후행어의 성격을 정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ㄱ)의 ‘개그운서’는 ‘유머와 재치가 매우 뛰어난 아나운서’ 즉 ‘개그맨 같은 아나운서’란 뜻으로 후행성분이 의미의 중심이다.¹⁸⁾ (3ㄱ)의 ‘닭돌기’는 닭과 비둘기를 아

16) 뮤페라: 국립국어원 2003년 신어. 뉴스 검색 103건.

17) 빌라트: 국립국어원 2002년 신어. 뉴스 검색 868건.

18) 개그운서: 국립국어원 2001년 신어. 뉴스 검색 57건.

올려 이르는 말이 아니라, ‘닭같이 살이 찢 비둘기’란 뜻이다.¹⁹⁾ ‘닭둘기’ 외에도 ‘매둘기, 돼둘기, 쥐둘기’ 등도 쓰인다.²⁰⁾ (3ㄴ)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後行成分의 屬性을 先行成分이 나타내는 경우이나 두 성분이 意味的 共通性이 없다는 것이 差異이다. ‘지옥철’은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만원을 이루어 발 디딜 틈도 없이 된 지하철을 지옥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먹부심’은 ‘먹는 일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이란 뜻이다.²¹⁾ (2)와 (3ㄱ)은 對等한 層位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들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는 두 성분이 結合하여 제3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후자는 先行成分이 後行成分의 의미를 補完해 주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4) 유형의 혼성어는 합성어에서는 보기 힘든 유형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밥집’은 ‘집’의 종류이고, ‘집밥’은 ‘밥’의 종류로 후행성분이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4) 유형은 선행성분이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합성어의 의미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4ㄱ)은 사람을 가리키는 혼성어들인데, 먼저 ‘기레기’는 ‘쓰레기 같은 기자’, ‘즉 기자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자’란 뜻인데 선행성분인 ‘기자’가 의미의 중심이고 후행성분이 의미를 보충해 준다.²²⁾ ‘닥터테이너’는 ‘연예인 같은 의사’로 역시 선행성분이 중심이다.²³⁾ ‘할빠’는 ‘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란 뜻이고, ‘할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할머니’란 뜻이다.²⁴⁾ ‘대프리카’는 처음 보고 바로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지나치게 더운 대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²⁵⁾

19) ‘닭둘기’는 2004년부터 쓰이는 신어인데 현재도 쓰임이 활발하다. “최근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탓으로 모이 주는 시민이 줄자 비둘기들이 기름기 흐르고 뒤뚱거리던 ‘닭둘기’의 모습에서 날쌔고 공격적인 ‘매둘기’로 변해가고 있다.” <국민일보 2004.12.2> 뉴스 검색 206건.

20) 매둘기: 매같이 날쌔 비둘기, 돼둘기: 돼지 같은 비둘기, 쥐둘기: 쥐 같은 비둘기.

21) 먹부심: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뉴스 검색 18건.

22) 기레기: “오래 전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어용 언론’, ‘판재 언론’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고,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오마이뉴스 2014.5.5> 뉴스 검색 2,370건.

23) 닥터테이너: “KBS ‘비타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닥터테이너(Doctor+Entertainer의 합성어) 이기호 교수가 배우 고아라와 뭉쳤다” <주간한국 2014.5.19> 뉴스 검색 145건.

24) 할빠, 할마: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뉴스 검색 231건(할빠), 269건(할마).

25) 대프리카: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뉴스 검색 364건.

‘대프리카’는 곧 ‘아프리카 같은 대구’의 의미로 역시 선행성분이 의미의 중심이다. ‘드라마툰’은 ‘드라마’와 ‘카툰’을 혼성한 말로 ‘만화적인 기법을 섞은 드라마’를 말한다.²⁶⁾ 이 단어 역시 ‘카툰 같은 드라마’의 의미로 선행성분인 ‘드라마’가 의미의 중심이 된다. ‘카페브러리’는 ‘도서관 잡지를 비치하여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커피숍’이다.²⁷⁾ 이 단어 역시 ‘도서관 같은 카페’이므로 선행성분인 ‘카페’가 의미의 중심이 된다. (4)의 예들은 (2)와 (3)의 예들처럼 同一 層位의 의미가 결합하여 혼성어를 형성하였으나 의미상 先行語가 意味의 中心이 된다. 이것은 혼성이 合成과 切斷이라는 形式에서만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라 構成 成分의 意味 配列에 있어서도 합성어와 差異가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들이다.

IV. 混成과 代置

다음으로 混成을 代置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대치는 이미 존재하는 形式의 一部를 分析해 내어 그것을 다른 形式으로 交替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신세대’에서 ‘신’을 분석해 내어 이를 ‘원’으로 교체하여 ‘원세대’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대치의 방식이다. 혼성과 대치는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상 만들어진 단어를 분석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車計簿’는 ‘자동차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은 장부’를 말하는데, ‘家計簿’에서 ‘家’를 ‘車’로 交替한 결과 ‘차계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代置의 예가 되고, ‘車+家計簿’의 결합에서 ‘가계부’의 ‘-계부’가 절단되어 결합했다고 보면 混成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채현식(2003)에서는 類推에 의한 파생어와 합성어 형성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조작이 첨가가 아니라 대치임을 논한 바 있는데, ‘알레르기 → 텔레르기, 가계부 → 차계부, 문맹 → 컴맹 → 넷맹’ 등의 예를 대치로

26) 드라마툰: “시트콤에 만화적 기법을 가미한 SBS TV 드라마툰 ‘달려라 고동어’는 당초 24부작이었다.”<뉴스 2007.6.18.> 뉴스 검색 2,528건.

27) 카페브러리: “카페브러리(도서관처럼 활용하는 카페)”<한국경제 2010.12.19.> 뉴스 검색 29건.

설명하였다.²⁸⁾ 여기에서는 단어형성규칙에는 添加 操作이 수반되지만, 類推에는 代置 操作이 수반된다고 보고,²⁹⁾ 파생과 합성을 표면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와 구조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알레르기 → 텔레르기’는 파생에서 음성적 유사성에 기댄 유추적 형성의 예로 보았는데, ‘르기’가 어떤 형태론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로 분석되지 않으나 근거 단어인 ‘알레르기’의 일부를 대치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가계부 → 차계부, 냉장고 → 생장고, 문맹 → 컴맹 → 넷맹’은 합성 중 의미의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적 형성의 예로 보았는데, 이 단어들은 각각 ‘가계-부’, ‘냉장-고’, ‘문-맹’인 내적 구조를 무시하고 단어의 첫 음절을 다른 언어 형식으로 대치해서 ‘차-계부’, ‘생-장고’, ‘컴맹’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우리는 단어형성규칙과 유추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유추의 큰 틀에서 혼성의 위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典型的인 代置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것과 ‘텔레르기’류는 差異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알레르기’에서 ‘알레-’가 ‘텔레-’로 대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추의 관점이나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다.

(5) 텔레비전 + 알레르기 > 텔레- + -르기 > 텔레르기

우리는 ‘텔레르기’의 ‘텔레-’와 ‘알레르기’의 ‘-르기’가 절단된 후 결합하여 혼성어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³⁰⁾

(6) ㄱ. 차 + 가계부 > 차 + -계부 > 차계부

ㄴ. 생생 + 냉장고 > 생- + -장고 > 생장고

ㄷ. 컴퓨터 + 문맹 > 컴- + -맹 > 컴맹, 인터넷 + 문맹 > -넷 + -맹 > 넷맹

28) 이 논의에서는 혼성이라는 개념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29) 단어형성규칙은 ‘X + Y → XY’로, 유추는 ‘XY → ZY’로 도식화하였다. 채현식(2003: 10) 참조.

30) ‘텔레르기’는 ‘텔레비전을 보는 데 대한 알레르기’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추정되나 신어 자료집이나 네이버 뉴스 검색 등에서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추 논의에서 ‘차계부’는 ‘가계부’에서 ‘가-’가 ‘차-’로 대체되었다고 보았으나 ‘차’와 ‘가계부’가 결합하면서 ‘가계부-’의 ‘-계부’가 절단되어 ‘차’와 결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³¹⁾ ‘생장고’도 ‘冷藏庫’에서 ‘냉’이 ‘생’으로 대체된 결과라고 보았으나, ‘생장고’는 ‘생생하다’의 어근 ‘생생’과 ‘냉장고’가 결합한 혼성어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생-’을 접사 ‘생-’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생-’은 ‘생고기, 생새우’와 같이 후행성분의 상태를 나타내는 접사로 이 경우에는 의미가 어색하다. ‘생장고’는 1995년 만도기계에서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이름인데, ‘김치 생장고 덩채’라고 표현하였다. 그 당시 광고를 보면 (김치를) 4개월 생생 보관, ‘생생한 맛 그대로 생장고 덩채’ 등의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생장고’는 이처럼 ‘음식을 생생하게 보관하는 새로운 개념의 냉장고’란 뜻이기 때문에 ‘생생 + 냉장고’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컴맹’과 ‘넷맹’은 각각 ‘컴퓨터’와 ‘문맹’, ‘인터넷’과 ‘문맹’에서 일부분이 절단되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채현식(2003)에서는 단어 형성의 주요 원리가 대체 조작에 의한 유추라고 보았기 때문에 혼성어 하나만 검토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우리는 유추로 본 일부 예가 대체에 의한 것이 아닌, 두 성분의 절단과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편 이찬영(2016: 80-83)에서는 일부 혼성어들은 ‘구조적 틀’을 기반으로 절단과 결합이 아닌 ‘대치’라는 형태론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7) ㄱ. 간파라치, 겹파라치, 과파라치, 땅파라치 ㄴ. 냥스타그램, 멕스타그램, 멍스타그램
 ㄷ. 겹티즌, 노티즌, 파티즌, 로티즌 ㄹ. 골강스, 노강스, 늑강스, 레강스
 ㄹ. 네티켓, 런티켓, 레티켓, 모티켓 ㄷ. 게임돌, 댄스돌, 몸짱돌, 소녀돌
 ㅅ. 관피아, 교피아, 국피아, 군피아 ㅇ. 건테크, 공테크, 노테크, 세테크

(7)의 예들은 이찬영(2016: 81)에서 제시한 예의 일부인데, 예를 들어 ‘네

31) 차계부: 국립국어원 1995년 신어. 뉴스 검색 1,953건.

32) 광고는 <http://blog.naver.com/dokken0109/220207580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즌'이라는 단어를 후행요소로 하는 혼성어를 처음 형성할 때는 앞 단어의 앞부분 또는 전체와 '네티즌'의 뒷부분 '티즌'을 결합하다가, 이렇게 형성된 단어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화자의 어휘부에 [X-티즌]N과 같은 틀이 만들어지고 이후는 개별적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틀에 접근하여 'X'의 자리를 새로운 형식으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X-티즌]N과 같은 틀의 예로 다음 21개의 단어들을 제시하였다.

(8) 갱티즌, 노티즌, 파티즌, 로티즌, 맵티즌, 멀티즌, 모티즌, 뮤티즌, 색티즌, 섹티즌, 아티즌, 악티즌, 안티즌, 액티즌, 앱티즌, 여티즌, 엽티즌, 욕티즌, 유티즌, 이티즌, 캐티즌³³⁾

(8)의 단어들은 다 [X-티즌] 형식으로 'X를 하는 네티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代置'로 混成語를 논할 때 意味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위의 예에서 [X-티즌]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욕티즌'은 '욕을 담은 글을 올리는 네티즌'이고 '여티즌'은 '여자 네티즌', '로티즌'은 '로또 복권을 즐겨 찾는 네티즌'이어서 두 구성성분의 의미 관계가 다 다르다. 즉 '욕을 담은 글을 올리는 네티즌'이라는 개념이 우선 존재하고 이것을 단어 형식으로 표현할 때 '욕+네티즌 > 욕+티즌 > 욕티즌'의 순서로 형성되는 것이지, '-티즌'이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욕'이 결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티즌'도 '여자'와 '네티즌'이 동일한 층위로 결합하고 있어 'X를 하는 네티즌'의 구조라 보기 어렵다. 둘째, 다른 의미의 '-티즌'도 존재한다.

(9) 아파티즌, 폰티즌

33) 각 단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다음과 같다. 갱티즌(갱+네티즌), 노티즌(노인+네티즌), 파티즌(왕따+네티즌), 로티즌(로또+네티즌), 맵티즌(맵+네티즌), 멀티즌(멀티미디어+네티즌), 모티즌(모바일+네티즌), 뮤티즌(뮤직+네티즌), 색티즌(色+네티즌), 섹티즌(섹스+네티즌), 아티즌(아줌마+네티즌), 악티즌(惡+네티즌), 안티즌(안티+네티즌), 액티즌(액트+네티즌), 앱티즌(앱+네티즌), 여티즌(여자+네티즌), 엽티즌(엽가+네티즌), 욕티즌(욕+네티즌), 유티즌(유비쿼터스+네티즌), 이티즌(E+네티즌), 캐티즌(브로드캐스트+네티즌)

[X-티즌]이 다 ‘X를 하는 네티즌’이라면 이를 대치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선행성분과 ‘네티즌’의 의미 관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티즌’이 ‘네티즌’이 아닌 예도 확인된다. ‘아파티즌’은 ‘아파트+시티즌’에서 온 혼성어로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를 의미하고, ‘폰티즌’은 ‘폰+시티즌’에서 온 혼성어로 ‘항의 전화를 자주 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이 경우 ‘-티즌’은 ‘시티즌’을 의미한다. ‘X-티즌’을 대치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예들이다. 셋째, 대치가 가능하려면 判斷의 基準이 되는 단어가 존재해야 한다. ‘X-티즌’류에서 가장 먼저 생긴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단어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생성될 것이다. 그러나 (8)의 예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단어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혼성이 아닌, 다음 예들이 대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본다.

(10) 가모장, 삼귀다, 세로수길

‘家母長’은 ‘家父長’에서 나온 말인데, ‘가부장’은 ‘봉건 사회에서, 가장권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가족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란 의미이다. 이 단어에서 ‘父’를 ‘母’로 交替함으로써 가정의 중심이 되는 여성을 의미하는 新語가 생긴 것이다.³⁴⁾ ‘삼귀다’는 ‘사귀다’에서 ‘사-’를 숫자 ‘四’로 보고 사귀기 전 단계를 이보다 하나 낮은 단계인 ‘三’으로 보아 만든 말이다. ‘삼귀다’는 ‘아직 사귀지는 않지만 서로 가까이 지내다’란 뜻이다.³⁵⁾ ‘세로수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에서 나온 말인데, ‘가로수길’은 ‘街路樹가 있는 길’이란 뜻인데, 여기에서 ‘街路’를 고유어 ‘가로’로 보아 이를 ‘세로’로 대치한 것이 ‘세로수길’이다.³⁶⁾ 이처럼 혼성에 의한 단어형성과 대치에 의한 단어형성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34) ‘가모장’은 최근 오락프로그램에서 쓰이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말인데, 그 쓰임은 2004년부터 확인된다. “또 외인세대에서는 가부장(家父長)에서 가모장(家母長)으로 권력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2004.2.1>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보면 총 800건이 확인되는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용례가 55건, 2016년 1월 <님과 함께2>(JTBC) 프로그램 시작 이후 용례가 745건이다.

35) 삼귀다: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뉴스 검색 6건.

36) 실제로 ‘세로수길’은 ‘가로수길’과 직각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을 의미한다. 뉴스 검색 812건.

우리는 이처럼 혼성은 합성과도 차이가 있으며 대치와도 차이가 있어 별개의 부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기존 논의에서도 혼성어를 별개의 부류로 보는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2005년 신어>에서는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유형을 단일어, 복합어, 약어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약어에 ‘융합, 축약, 탈락’이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⁷⁾ ‘융합’이 우리가 논하는 혼성어인데, ‘네카시즘, 유포터’ 등이 그 예라 하였다.³⁸⁾ 노명희(2010)에서는 혼성어는 두 단어의 절단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기제가 관여하기 때문에 합성어와 구별되는 신어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양명희·박미은(2015: 20)에서도 여기가 절단된다는 점에서 혼성은 합성이나 파생과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용찬(2008: 125)에서는 지극히 외래적인 단어형성방법인 혼성이 점차 우리말 단어형성방법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혼성은 파생이나 합성이 아닌, 별도의 단어 형성 방법의 하나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V. 混成과 派生

이상에서 본 것처럼 混成은 단어 형성에 切斷이 관여한다는 점과 意味配列이 다른 단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合成과 差異가 있으며, 두 성분의 結合이라는 점에서 代置와도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混成語의 成分이 接辭처럼 쓰이는 예들을 보기로 하자. 이찬영(2016: 93)에서는 ‘파라치, 툰, 텔, 텅, 테크’³⁹⁾ 등의 요소가 意味의 特殊化를 겪고 疑似接辭로 쓰인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텔; 텅’은 ‘고시텔, 골프텔; 번개텅, 소개텅’ 등과 같이 선행 요소가 자립적 어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接辭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37) ‘축약’은 ‘미자(未者)’(미성년자), ‘탈락’은 ‘권방(권력층과 방송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취뽕(취업 뽕개기)을 줄여 이르는 말’가 그 예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살펴본 약칭어에 해당한다 하겠다.

38) 네카시즘(←네티즌+매카시즘), 유포터(←유비쿼터스+리포터)

39) 파라치(상품파라치, 서울시파라치), 툰(드라툰, 디지털), 텔(고시텔, 골프텔), 텅(경매텅, 노예텅), 테크(건강테크, 땅테크)

다고 하였다. 혼성어의 후행성분이 원래 의미에서 변하여 접사처럼 쓰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한 의미의 특수화 또는 의미 변화를 判別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혼성어의 후행성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단독으로 쓰일 때도 새로운 의미로 쓰인다면 이는 단어의 意味 擴大이지 接辭化에 의한 意味變化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혼성어의 구성 성분으로 쓰일 때처럼 절단된 형태가 자립적으로 쓰이면서 의미변화를 보인다면 이것 역시 접사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파라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파라치’는 ‘연예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 파는 사진사’란 의미의 ‘파파라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보상을 타 내는 사람’의 의미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 예는 ‘파파라치’ 자체가 의미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 ㄱ. 국내에서 암약 중인 ‘파파라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파파라치는 원래 유명인사들의 사생활을 몰래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사진사들을 지칭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의 범법행위 장면을 촬영해 포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꾼으로 통한다.<국민일보 2016.7.29>

ㄴ. 두 달 앞(9월 28일)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학원가가 바빠졌다. ‘포상금 파파라치’ 양성 학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포상금 파파라치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법 행위를 추적하는 사람들이다. 현상금 사냥꾼처럼 범법 행위를 쫓아 ‘수익’을 창출한다.<중앙일보 2016.7.30>

(11)의 예에서 ‘파파라치’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사냥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만약 ‘파파라치’에 이러한 의미가 생긴 것이라고 본다면 ‘파파라치’의 의미확대가 일어난 것이고, ‘-파라치’가 접사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탕’의 경우도 ‘소개팅, 번개팅’ 등에서 ‘-탕’은 ‘미팅’에서 절단이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남녀간의 만남’이란 의미에서 ‘만남’ 자체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접사화되었다고 보았는데, ‘미팅’ 자체가 ‘만남’의 의미

로 포괄적으로 쓰인다면 그것을 꼭 의미변화에 의한 접사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테크’의 경우도 ‘노테크, 차테크, 혼테크’ 등의 의미를 보면, 후행하는 ‘-테크’가 ‘테크놀로지’에서 왔다고 본다면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후행성분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재테크’라고 본다면 특별한 의미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즉 ‘재테크’와 이에서 절단된 형태 ‘테크’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혼성어 성분의 접사화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혼성어에서 일어나는 접사화를 接頭辭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12) 금태(←金+명태)⁴⁰⁾, 금추(←金+배추/상추)⁴¹⁾, 금겹살(←金+삼겹살)⁴²⁾, 금등어(←金+고등어)⁴³⁾, 금징어(←金+오징어)⁴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식료품의 값이 급등할 때 그 앞에 ‘금’ 자를 앞에 붙여 ‘금겹살(삼겹살), 금등어(고등어), 금태(명태)’ 등과 같이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추’는 경우에 따라 ‘상추’를 가리키기도 하고, ‘배추’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단어들은 후행요소가 절단된 후 결합하였기 때문에 혼성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금처럼 비싼 ○○’으로 해석되는데, 이 의미는 단일어 ‘금’의 의미에서는 찾을 수 없다.

40) 금태: 금처럼 비싼 명태. “최근에는 생태가 구하기 어려워지자 '금태'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매일경제 2000.12.14.> 뉴스 검색 137건.

41) 금추: ① 금처럼 비싼 배추.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 배추가 ‘금추’로 불릴 정도이지 만” <강원일보 2004.8.19.> 뉴스 검색 176건. ② 금처럼 비싼 상추. “특히 최근 ‘금추’로 불리는 상추의 경우 1상지(4kg)에 1만5천원에 거래돼<연합뉴스 1998.8.11.> 뉴스 검색 52건.

42) 금겹살: 금처럼 비싼 삼겹살, “‘금겹살’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값이 오른 돼지고기는 이번 주에도 강세가 계속됐다.” <서울경제 2004.7.15.> 뉴스 검색 892건.

43) 금등어: 금처럼 비싼 고등어. “서민의 반찬인 고등어가 마리당 1만원짜리 금등어가 되고” <부산일보 2010.12.2.> 뉴스 검색 44건.

44) 금징어: 금처럼 비싼 오징어. “金등어·金징어·金오리… 장바구니 담을게 없다” <문화일보 2011.4.12.> 뉴스 검색 18건.

- (13) 금(金) 鎔 ① 황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 ② 문서에서 돈을 이르는 말. ㉠금 오백만 원정. ③ =금메달. ㉡아깝게 금을 놓치다 ④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금색’, ‘금제’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금두꺼비/금목걸이/금수저.

앞에서 본 ‘금추’는 ‘금배추’나 ‘금상추’로도 쓰인다.

- (14) ㄱ. ‘금상추’ 이어 이번엔 ‘금호박’<내일신문 2005.9.16.>
 ㄴ. 금배추-금무-금양파-금마늘...밥상 물가 빨간불<국민일보 2016.5.9.>

위의 용례에서 ‘금상추, 금호박, 금배추, 금무, 금양파, 금마늘’ 등은 채소 이름 앞에 ‘금’이 붙여 채소 가격이 비쌌을 나타낸 예들이다. 안소진(2004: 20)에서는 학자마다 기준이 달라 한자어 접두사의 판별이 쉽지 않음을 지적 하면서 固有語와의 結合 可能性, 意味 有緣性 喪失 등을 接頭辭 判別 基準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배추’는 ‘금으로 만든 배추’나 ‘금색인 배추’가 아니라 ‘비싼 배추’를 의미한다. 이 경우 ‘金’은 고유어와 생산적으로 결합하고 명사 ‘금’과의 의미 유연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漢字語 接頭辭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제 (12)의 예를 다시 보자. ‘금태, 금추, 금겹살, 금등어, 금징어’ 등은 ‘금배추, 금호박’ 등과 마찬가지로 ‘비싼 ○○’를 의미하나 단어 형식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금태, 금추’ 등은 ‘접두사+절단된 명사’ 형식의 혼성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과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쓰인 혼성어는 또 있다.

- (15) 무플(←無+리플), 반수생(←半+재수생),

‘리플’은 ‘리플라이(reply)’에서 온 말로 ‘댓글’로 醇化한 바 있다.⁴⁵⁾ ‘무플’은 접두사 ‘無’와 ‘리플’의 ‘-플’이 결합하여 된 혼성어이다.⁴⁶⁾ ‘금추, 금징어’

45)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https://malteo.korean.go.kr/jsp/index.jsp>)에서 2004년 7월 12일 다듬은 말이다.

46) 무(無)- 無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무감각/무자비. 노명희(1998: 70~71)에서는 ‘無’를 신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접두사로 발달할 가능

등과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있는 혼성어의 예이다. ‘반수생’은 접두사 ‘半’과 ‘재수생’이 절단하여 결합한 혼성어인데, ‘반’은 ‘거의 비슷한’이란 의미인 접두사이다.⁴⁷⁾ 지금까지 혼성어는 語根과 語根의 結合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금징어’ 등의 예를 통하여 ‘接頭辭+語根’ 구조에서도 切斷이 생기는 현상이 있으며 이를 혼성어로 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단순히 혼성어 용법의 확대로 보아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하겠지만 接辭가 結合한 混成語의 존재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混成語의 位相와 그 性格을 살펴보았다. 혼성은 합성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기도 하나 切斷이 일어난다는 점과 그 意味 配列에서 차이가 나는 예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보아 合成과는 다른 부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합성어에서는 보기 어려운, 意味의 中心이 先行成分에 오는 混成語의 類型에 注目하였다. 또한 혼성을 代置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대치라고 볼 수 있는 유형과 혼성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은 따로 存在함을 보았다. 그리고 혼성에서 일부 예가 接辭처럼 쓰이는 현상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는데, 혼성어의 후행성분이 생산적으로 많은 예들에 결합한다고 하여도 이를 접사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接頭辭로 볼 수 있는 성분이 혼성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혼성이 합성과만 구별해야 할 현상이 아니라 派生과도 구별해야 할 현상임을 보여 준다.

성이 많은 “약활성어근”으로 보았다.

47) 반(半)- 圓 ①((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절반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반팔/반자동.
②((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의 비슷한’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반나체/반노예/반죽음.

<參考文獻>

1. 資料

- 국립국어원(1995), 95년 신어.
국립국어원(2000), 2000년 신어.
국립국어원(2001), 2001년 신어.
국립국어원(2002), 2002년 신어.
국립국어원(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원(2004),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2005), 2005년 신어.
국립국어원(2014), 2014년 신어.

2. 論著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정은(1995), 「현대 국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南基卓(2013), 「新語 形成 過程과 再分析」,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pp.5~38.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pp.255~281.
박용찬(2008),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권1호, pp.111~128.
시정근(1998), 『수정판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신희삼(2008), 「N1+N2의 의미 구조 연구」,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103~122.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명희·박미은(2015), 형식 착감과 단어형성법, <우리말글> 64, 우리말글학회, pp.1~25.
오혜선(2013), 「현대 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2016),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pp.269~291.
이찬영(2016),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연(2015), 「현대국어 혼성어의 개념과 형성 원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수(1992),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채현식(2003), 「대치에 의한 단어형성」, <형태론> 5의1, 형태론 편집위원회, pp.1~21.
- 최옥자(2010), 「신어의 유형과 조어 구성 방식」,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04), 「단어 형성과 음절수」,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pp.183~205.

■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blends in Korean

Lee, Seon-yeong

Recently blending has become a very productive word-formation process in Korean. Blending is a word-formation process in which two independent words are combined into a new word with the shortening of at least one of the source words. Blends have point of similarity with compounds in terms of combining of two source words, but have difference with it in terms of shortening of at least one of the source words. Generally there are three viewpoints on blends. They are that blends is a subtype of compounds, or another type different from compounds, or replacement by the analogy. Blending is different from compounding in terms of shortening and arrangement of meanings. In blending mostly first component is core meaning, on the other hand in compounding second component is core meaning in no small measure. And sometimes blending is regarded as a way of replacement, but the type of replacement is different from the type of blending. In some cases in blending, appearances of being used like affixes occur. But we cannot regard them as affixes easily even though second components of compounds create many examples. And sometimes components regarded as prefixes get involved in blending. It shows that blending is different from not only compounding but also derivation.

※ key-words: new words, blends, shortening, compounds, derivative, replacement, core meaning, prefix